

미래전략연구원 오감도

취임 100일의 오바마와 한반도

백승주 (미래연 평화통일전략센터장 /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2009년 4월 5일 북한이 광명성 2호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날은 운명처럼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통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100일을 축하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책검토 결과’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에서 발사 이후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스탠스는 실질적으로 조금 혼선을 보여줬다. 초기에는 요격 가능성까지 보이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발사 직전에는 요격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일본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발사 직후 유엔 의장성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은 전례 없이 강경한 대북입장을 유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하여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거칠면서도 직접대화를 하는 방식(Tough and Direct diplomacy)’을 택하겠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서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입장보다는 북한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는 태도, 즉 ‘거친 방식’은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한국방문 중에 잘 나타났다. 클린턴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행기 안에서 북한내부에 승계경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쟁이 북한의 불안정을 만들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북한이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보인 모험적 대외정책은 북한내부 문제라는 중대한 문제제기를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다. 아울러 게이트 국방장관은 2006년 7월 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실패했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위협능력을 폄하, 북한을 자극했다. 나아가서 미국 국방성 관리들은 요격 가능성까지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다른 한편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직접대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앞두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년 2월에는 보스워스 전 한국대사를 북한문제를 담당할 대사로 임명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한국대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사무총장을 역임한 한국문제 전문가이면서

‘한국안보’라는 기존 틀을 넘어서 ‘한반도안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인물이기도 하다. 보스워스 대사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한반도를 다루어야 한다는 ‘미국의 Two Korea 정책’을 한반도정책에 적용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미국의 직업외교관이며, ‘대북한 직접대화’를 위한 오바마 외교안보팀의 한반도정책 조율사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동맹네트워크 속의 한미동맹’이라는 핵심개념을 반영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FTA 재검토 필요성’을 한국정부가 이해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조기 비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이 상징성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가입을 검토하자, 신속하게 환영메시지를 준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동맹국가로서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특수한 입장’보다는 강력한 양자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한반도정책에 대해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라는 강경한 조치를 통해 관심을 끌고 미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선택했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FTA 비준을 적극 추진하고, PSI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한미관계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취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이 남북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는 없지만 기간 중 북한은 거침없이 한국을 압박했고,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기간 중에 개최된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는 북한의 연례적인 비판을 받았지만 한미군사협력관계를 과시하여 북한의 대남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 한국에 대해 ‘양자동맹국가의 보편적 의무’를 강조하는 한반도정책에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이 식별된다. 첫째,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이전 정부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초 G20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정세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하고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 둘째, 한미협력 차원을 넘어 한미일은 물론 미국 동맹국들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실질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 러시아 입장을 넘어서 한미일 공동의 입장을 의장성명에 반영한 것은 동맹간 협력을 끌어낸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확실한 신뢰와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취임 100일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핵보유를 실질적으로 묵인하고, 북한핵의 확산방지에만 만족하는 파키스탄식 해결방식’을 선택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충분히 불식하지 못했다. 북미직접대화를 강조함으로써 6자회담의 동력과 유용성에도 보이지 않는 손실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100일 동안 북한핵 해결을 위하여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

어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100일은 한반도정책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성과도, 비전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일의 협력틀 속에 북한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의지는 보여주었고, 통미봉남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취임 100일 동안 오바마 행정부를 장거리 로켓으로 압박한 북한을 미북관계 정상화라는 '인센티브'로 다룰 것인가 아니면 유엔결의 1718호로 거칠게 다룰 것인가가 오바마 시대의 미국과 북한 관계, 미국과 한반도 관계를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

* 미래전략연구원은 위클리경향과 공동으로 기획시리즈 '오감도(五瞰圖)'를 게재합니다. 매월 한 차례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해봄으로써 한국의 중·장기적인 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모색을 해가고자 합니다. 본고는 위클리경향 823호(2009/5/5)에 요약문이 실렸습니다.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801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